

서울시 四大門內에 있어서의 廣場形態別 類型分析에 對한 研究

李 範 宰 / 檀國大學校理工大學 建築學科助敎授

1. 序 論

오늘날 서울은 인구 900만을 포용하는 세계의 큰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왕조가 도읍할 당시의 4대문 내는 현금 가장 복잡한 도심으로 화했다.

1960년대 이후의 經濟中心政策 및 70년대 이후의 高度成長으로 서울에로의 人口集中이 加速되자, 江南(漢江以南)으로 서울市勢가 擴大되고 앞으로 江南·北의 人口比例는 점차 우세하여질 것이다.

서울의 江北-특히 舊四大門 내의 街路形態는 도읍 당시의 骨格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 예로서 종로·을지로·칭계천·퇴계로 등이 東西로 달리어 경복궁-남대문을 잇는 南北道路를 제외하고는 南北動線이 발달되지 않았던 초기 漢陽時代의 PATTERNS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1975년 개통을 본 地下鐵 1號線도 역시 이러한 狀況을 順應한 것이다.

대체로 우리의 風俗과 氣候조건이 室內生活를 위주로 하여 왔기 때문에 西歐나 南歐와 같은 屋外活動空間의 概念이 우리에게 없었으며, 대규모의 集團公式行事가 없었기에 街路和 街路 사이에 있을 수 있는 節點-즉 유럽의 PLAZA(廣場)가 우리 서울에 존재치 않는 것이다.

본 研究에서는 이러한 背景下에서, 車輛交通의 혼잡으로 점차 모습과 패턴이 바뀌고 있는 서울의 舊四大門 내의 節點들을 파악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節點들을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平面的 형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空間的 形態를 분류하여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했다.

2. 都市空間과 廣場

룩셈부르크의 건축가인 Rob Krier는 “都市와 建築의 타이포로지”에서 “都市空間”의 概念을 “都市內에 있는 建物들 사이의 空間”이라고 정의하였고, 이 都市空間을 “廣場”과 “街路”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廣場”이라 함은 “어떤 地點의 주위를 건축물이 둘러싼 것”이라 하였고 이는 “外敵에 대한 방어의 용이” “中庭的인 形態를 취함으로써 象徵的 意味를 나타낼 수 있음”, “儀式的 場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무릇 廣場은 西歐的인 概念으로 생각할 때 生活의 中心地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이의 初期形態는 바로 그리스의 Acropolis, 로마의 Forum 등으로서 市場의 商業活動, Community 施設, 도서관, 극장, Concert Hall, 政治的 集會場所로서 쓰였던 것이다.

廣場의 概念을 이렇게 定義한다면, 자연 사람의 步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정된 Scale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 바, Rob Krier는 Le Corbusier의 말을 인용하여 “말과 인간들의 관계가 희박해진 現在, 차량과 인간과의 관계로 미루어 보아 廣場 Scale의 변화와 原來廣場의 의미가 희박하

여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동차로 인한 步行의 차단, 步車의 混合으로 이루어지는 廣場의 意味의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廣場”이라 함을 Scale의 크기와 步行者-즉 人間의 접근성여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初期 유럽국가에서 나타났던 개념인 “상업活動의 中心地” “政治的 集會場所”, “Community 施設의 Space”, “圖書館, 音樂堂 등의 文化施設의 場所”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3. 서울 四大門의 廣場

서울市內의 四大門 내에서 廣場으로서의 意味를 갖는 장소를 택하기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① 政治的 中心意味를 갖는 場所(가)
 - 中央庁 앞
 - 市 庁 앞
- ② 商業的 中心意味를 갖는 場所(나)
 - 종로 1街 네거리
 - 乙支路 入口
 - 新世界 앞
- ③ 歷史的 및 心理的 意味를 갖는 場所(다)
 - 世宗路 네거리
 - 과고다公園 앞
 - 安國洞 로타리
- ④ 文化的 象徵的 意味가 있는 場所(라)
 - 東大門 주변
 - 南大門 주변
 - 秘苑 앞
 - 西大門 로타리 부근

⑤ 交通의 分節點의 意味가 있는 場所 (㉸)

- 서울驛 앞
- 鍾路 4 街 로타리
- 乙支路 4 街 로타리

⑥ 集團의 人間活動의 意味가 있는 場所 (㉸)

○ 乙支路 6 街 서울운동장 앞 부근 이상과 같은 6 개 기준에 의거 16 개 場所를 찾을 수 있다. 이들 場所를 “廣場”으로 부르는 근거는 바로 이러한 場所들이 갖는 의미가 現代 “廣場”의 새로운 概念을 포용하고 있으며, 둘째, 주위에 건물들로 둘러싸인 空間이며, 그 場所부근에 象徵的 意味를 가진 文化財, 歷史物 또는 現代의 Activity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廣場에는 그 부르는 名稱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名稱은 正式로 붙여진 것이 없고, 이 場所들 중 유일하게 표시된 것은 “乙支路 入口” 뿐이다. (國立地理院監修: 1983年 9月 15日刊 서울觀光地圖 1/7,000). 16 개소의 俗稱을 分類하면,

가) “廣場”이라는 俗稱이 사용되는 곳 (A)

- 中央庁 앞 廣場 ①
- 市庁 앞 廣場 ②
- 서울驛 廣場 ③

나) “네거리”로 불리는 곳 (B)

- 世宗路 네거리(혹은 光化門 네거리) ④
- 鍾路 네거리(鍾路 1 街) ⑤

다) “로타리”로 불리는 곳 (C)

- 安國洞 로타리 ⑥
- 鍾路 4 街 로타리 ⑦
- 乙支路 4 街 로타리 ⑧
- 南大門 로타리 ⑨

라) “네거리”와 “로타리”를 混用한 곳 (D)

- 東大門 로타리(네거리) ⑩
- 西大門 로타리(네거리)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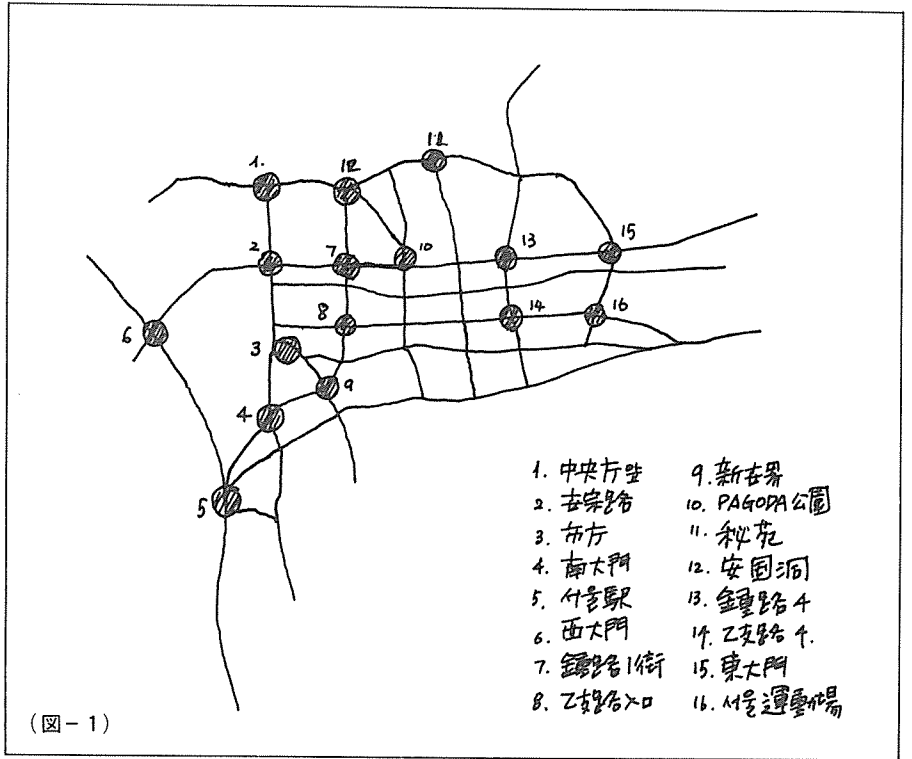
마) “앞”이라는 건물위주 호칭인 경우 (E)

- 파고다공원 앞 ⑫
- 서울운동장 앞 ⑬
- 비원 앞 ⑭
- 신세계 앞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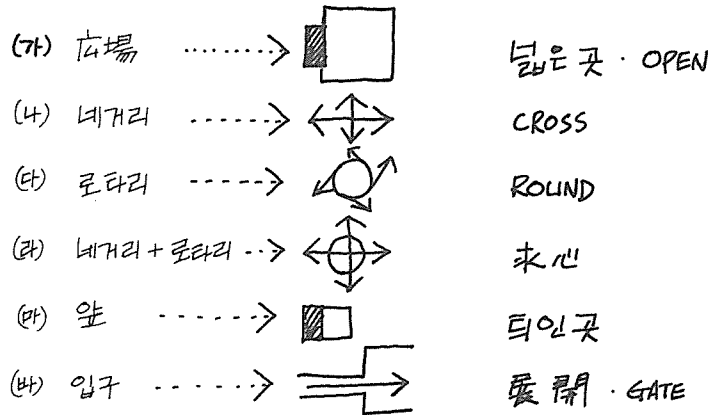
바) “기타” (F)

- 乙支路 入口 ⑯

로 나눌 수 있다. (도 1 : 서울四大門內 광장위치도)



(圖 - 1)



(圖 - 2)

상기의 속칭은 영웅이나 기념물의 이름이나 역사적 사실을 廣場의 명칭으로 사용하여 廣場자체의 Activity와 관계없는 Image를 부여하는 유럽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있다. 이를 Diagram으로 표시하면 그림(도 2)과 같다. 여기서 “廣場”을 붙이는 경우는 “넓은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중요 건축물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예: 중앙청 · 시청 · 서울역 등). “네거리” 또는 “로타리”는 交通上의 節點을 강하게 의미하되, “로타리”로 호칭되는 곳은 우연히도 예전 電車(이미 철거되어 버린)의 회전點과도 일치하다. “네거리”는 강한 “Cross”형태의 개념을 풍긴다(동대문 · 남대문 · 서대문 등의 重要 건축

물 주위라는 의미와, 도로명칭인 세종로 · 종로 · 안국동 등의 지역 · 도로명을 붙인 경우로 나뉜다).

“앞”이라는 경우는 중요 건축물을 부각시키려 하나 Scale이 작은 “넓은 곳”을 의미하고 있고, 독특하게 “乙支路 入口”라는 “門”(Gate) 개념을 가진 廣場 명칭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廣場의 명칭은

첫째, 건축물의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둘째, 건축물에서의 방향성에 따라가 건축물 전후방에 있으면 “앞”

나) 건축물주위의 공간은 “로타리” 또는 “네거리”

(圖-3)

廣場自體의 形態 (廣場空間 Type)	4 각형 (a)		連結되는 街路의 形態 (廣場形의 Type)	圓	
	正四角型 a-1	직사각형 a-2		정원 b-1	타원 b-2
3 각형 (c)	다각형 b-3	정삼각형 c-1	다각형 S-3	삼각형 b-3	정삼각형 c-1
	직삼각형 c-2	불규칙형 c-2		불규칙형 S-5	불규칙형 c-2
	불분류형 c-3	개방형 c-3		개방형 S-7	개방형 c-3

로 붙이되

셋째, Scale이 크면 廣場, 작으면 단지 "앞"이라고 여운을 남기며

넷째, 4개의 도로가 교차하면

"네거리"; 부정형이나 多數의 도로가 교차하면 "로타리"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廣場의 平面形態分類基準

각 廣場이 가지고 있는 外形의 形態의 分析項目은 다음의 몇가지로 분류된다. (도3)

(1) 廣場自體의 形態(廣場空間의 Type)

- 四角型: 正方形
直四角型
- 圓型: 正圓型
橢圓型
多角型
- 三角型: 正三角型
直三角型
不等三角型

(2) 廣場에 連結되는 街路의 形態 (廣場形의 Type)

- 閉鎖型
- 1街路型
- 2街路型
- 3街路型
- 十字型

(圖-4) 各 廣場의 形態別 分析

명칭	형태 CODE	형태	형태 CODE	형태유형	가로형 CODE	가로형 의미	의미 CODE	면적 (㎡)
① 중앙형 廣場	A	중앙형	a-2	직사각형	S-3	T자형	정서적 중심	가 17,200
② 市街 廣場	A	市街	a-1	정사각형	S-5	복거로형	정서적 중심	가 10,400
③ 學校 廣場	A	學校	a-2	직사각형	S-6	불규칙형	교동의 분점점	다 13,000
④ 主要路 네거리	B	네거리	a-2	직사각형	S-4	가 + 자형	연사적 의미	다 2,100
⑤ 鐘路 바거리 (중로1차)	B	바거리	a-1	정사각형	S-4	삼각형	상업적 중심	나 3,300
⑥ 安國洞 로타리	C	로타리	b-3	다각형	S-6	불규칙형	연사적 의미	다 2,100
⑦ 鐘路 4차로 바거리	C	4차로	a-1	정사각형	S-4	삼각형	교동의 정점	다 3,600
⑧ 乙支路 1차로 로타리	C	1차로	a-1	정사각형	S-4	삼각형	교동의 정점	다 3,300
⑨ 南大門 로타리	C	로타리	b-3	다각형	S-6	불규칙형	문화적 연사적 상징	라 7,500
⑩ 東大門 로타리 (세거리)	D	로타리	c-3	삼각형	S-4	삼각형	문화적 연사적 상징	라 4,800

⑪ 西大門 로타리 (4대문)	D		a-1	S-4	문화적 상징	라	3,500
⑫ PAGOYA 공원앞	E		b-3	S-5	역사적 의미	다	8,000
⑬ 서울운동장앞	E		a-1	S-4	공공의 기쁨	바	2,500
⑭ 雜草場	E		C-3	S-3	문화적 상징	라	1,700
⑮ 新古幕場	E		C-3	S-4	상업적 중심	나	3,300
⑯ Z동길 앞	F		a-1	S-4	상업적 마당	바	3,600

- 多街路型
- 不規則型
- 開放型

5. 各廣場의 形態

서울시내 四大門 내의 16개 廣場에 대하여, 意味로서의 기준, 명칭(속칭)으로서의 기준, 廣場空間Type, 街路形態로서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도 4). 이것을 다시 분석하여 Diagram을 그리면(도 5)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서울 4대문 내에서는 정방형 또는 직 4 각형의 廣場空間이 가장 많다는 분석이 된다. 원형이나 타원형의 廣場이 없음은 유럽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가로형과의 관계를 보면 +字型이 가장 많은 바, 이는 街路의 交叉點에 교통량 增加로 인한 形成으로 보여지며, 多街路型과 不規則(不定型)한 것이 5군데나 되는 것은 역시 旧市街地이기 때문에 小路들의 擴張으로 자연히 形成되어진 것으로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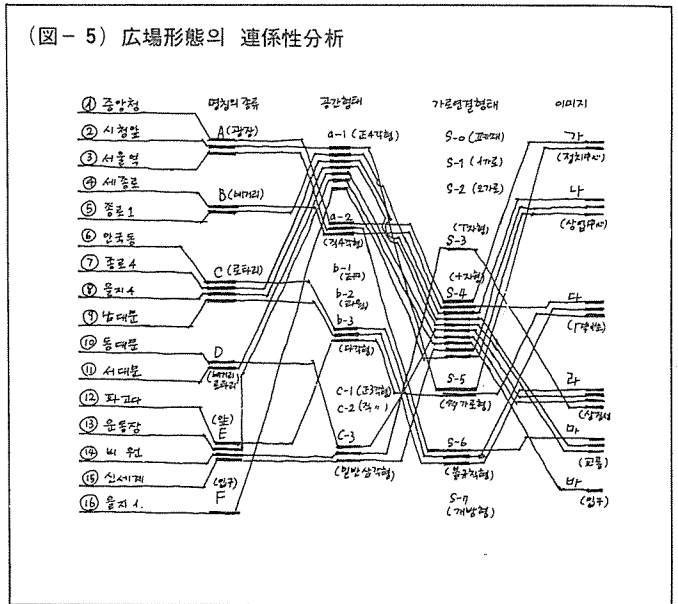
6. 結論

서울 시내의 옛 도심부였던 4大門 내의 16개 “넓은 場所”를 택하여 研究·調査한 결과로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屋外生活空間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市民들에 의한 直接的인 Human Activity는 없으나, 그것이 갖는 “象徴性”, “中心性”, “歷史性” 등으로 보아 “넓은 場所”로서의 이 Space들을 “廣場”이라 부를 수 있다.
- (2) 이 廣場들을 인지하는 市民들의 Pattern은 주로 重要 건축물로서 되어진다. 따라서 고유명칭이 없고 그 廣場前後 左右의 象徴的 건축물의 명칭에 방향을 표현하여 인식하고 있다.
(예: 서울역 광장, 비원앞 등등)
- (3) 이 廣場들은 주로 4 각형의 형태를 가진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포름(Form)이나 아고라(Agora)와 같은 시장·담화의 역할은 없고 주로 차량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Scale의 空間으로 擴張되어 있다.
- (4) 廣場과 연결되는 街路 Pattern은 주로 네거리형태이며, 主要한 場所(예를 들면 東大門·南大門 등의 旧市街地와 새로운 확장 시가지와의 경계부분 등)는 기존의 小路가 擴張되면서 점차 不定型의 平面形

(圖-5) 廣場形態의 連係性分析



態를 갖게 되었다.

- (5) 市民이 휴식할 수 있는 Space를 인접해서 갖고 있는 곳은, 시청옆 덕수궁·비원·과교다공원 등이 있는바, 이중 과교다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담장으로(H=2,100 이상)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된 市民에의 배려가 아쉽다.
- (6) 가장 넓은 광장은 서울역 앞으로서 13,000평 내외이며, 가장 적은 곳은 비원 앞의 1,700평이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서울 4대문안의 광장에 대한 공통적 특성을 찾아보았는 바, 지금 현재로 모든 廣場이 自動車의 전용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을, 都市計劃, 再開發計劃, 建築設計時 가장 먼저 步行者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參考文獻

1. “URBAN PATTERN” : ARTHUR B. GALLION, SIMON EISNER (英語版) VAN NOSTRAND REINHOLD CO.
2. “Space, time, Architecture,” GIEDION, SIGFRIED(1965), Harvard University Press
3. “URBANISME”, Le Corbusier, (번역판, 産業圖書出版社, 1977)
4. “都市と建築のタイホロジ—”, Rob. Krier (黒川雅之, 岸和郎訳), 1980. A+U 増刊号
5. “DESIGN OF CITIES” Edmund N. Bacon(1969). M. I. T. Press